

##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

문 복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가장이 된 나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남편의 친구 중 한 분이 제법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다며 정규채용 시기가 아니니 다만 얼마라도 인사담당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중환자실 투병으로 이미 집에 돈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고3, 중3 두 아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일자리가 너무도 간절하였지만 옳지 못한 방법이란 생각에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이웃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채용공고가 났다며 이력서를 내보라고 알려주었고 난생 처음 문구점에서 이력서를 사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다가 변변한 학력도 경력도 없어 행여나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였고, 오랜 간병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내게 힘든 일인데 잘할 수 있겠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뽑아만 주시면 성실히 일하겠노라 간절한 눈빛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한 터라 지원자가 많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이야기로 워낙 일이 힘들어 피골이 상접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너무나 간절하게 지원의사를 밝혀 기회를 주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여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들이 많았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동료들과 달리 집안의 가장으로 두 아이들의 교육비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저는 그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가 되어 집에 올 수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버스 두 번을 갈아타야할 만큼 멀고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청소도 하고 야근과 특근까지 도맡아 하며 성실히 일한 덕분에 입사 후 몇 년이 지나 조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는 동료들에

게 나이가 제일 많아서 회사에서 왕 언니로서 대우를 해 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지난 세월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 년 정도 조장을 맡아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참 어린 동료는 자신이 조장이 되고 싶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고, 급기야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나쁜 소문까지 사무실에 퍼트려 회사의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생각다 못한 저는 보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상급자에게 명절마다 좋은 선물로 인사를 잊지 않던 그녀가 조장이 되었습니다. 조장이 되면 보직 수당도 있고 업무배치도 할 수 있어 이래저래 득이 많았습니다.

“언니, 뭐한다고 조장을 그만 뒀습니까? 언니도 저 언니처럼 명절에 인사도 쪼매하면서 그냥 버티지,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까!”

새로 조장이 된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고 업무의 배치에 있어서도 항상 제일 힘든 일만 주어 정말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자 저를 걱정해주는 동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더구나 조장 욕심에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소문마저 퍼트렸던 터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것이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 그저 묵묵히 일을 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일을 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파스 투혼을 하며 결근 없이 더욱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생겼던 해 우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인원 감축이라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어느 누구 한 명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간다는 사람이 없어 회사에서는 얼마간의 숙고 끝에 해고통지서를 해당 직원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왠지 해고 대상자는 바로 저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은데다가 일도 못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일을 그만두어야 할 1호 대상자는 바로 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더구나 '명절에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뒤늦은 후회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말한 것처럼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라 잘 봐 달라는 대가를 바라는 선물은 뇌물 같아 싫었고 편한 포지션을 위해 뇌물을 보내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일로 배치되는 것 같아 그러질 못했습니다. 대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겠다는 회사의 방침을 듣자 불안한 마음에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해고 통지서를 줄 것만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갑작스레 직원 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어느 날과 달리 더욱 무겁게 입을 여시더니 급기야 일을 그만 두는 직원이 생겼다고 슬픈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동안 애써 주신 직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미 해고통지서를 받고 본인임을 아는 동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와서 짧지만 슬픈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그 대상자 속에 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뜻밖의 결과에 좀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워낙 힘든 일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우리 회사 정년퇴직 1호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으며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준비하겠노라 회사 측에서는 제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날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식도 없이 그냥 똑같이 새벽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다시 정든 작업복을 입고 일할 일이 없으니 한복에 올림머리를 하며 꽃다발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겠노라 뜻을 전한 것이지요.

"역시 문 여사답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인원감축이 있을 때 사실 문 여

사님이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 공장 곳곳을 청소하는가 하면 작업일지를 보다보니 항상 힘든 파트 맡아 하면서도 바꿔 달라 힘들다 불평 없으셨던 노고가 드러나 감축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신 것이지요. 여사님이 동료들 보다 나이 차이가 많아 걱정이었지만 여사님의 청렴하게 근무하는 모습이 어린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윗분들의 생각이셨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식을 놓고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누가 알아줄 거라 생각지 않고 묵묵히 지냈었는데 저에게 청렴이라는 고마운 말로 노고를 치하해 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여사님이 계속 회사에 남아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밖의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사는 제게 삶의 터전이었고, 아이 둘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어린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제가 행여 회사에 누가 될까 싶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나이 많다고 편한 자리 달라 청탁이나 뒷거래 한 번 없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일해 온 저의 진심이 정년퇴직이라는 영예를 안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제 스스로 너무나 대견하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온 동료들과 친구들은 반듯하게 살아온 남편에 대한 일들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며 승진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지는 그를 무능하다 융통성이 없다 어지간히 바가지를 긁은 것이 너무나 미안하였습니다. 윗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커 가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직책을 갖는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냐며 잔소리를 하였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소신 있게 살아왔습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니? 아저씨가 일이 많아 퇴근이 늦을

때마다 함께 남아 도와주시고, 회사 일이 원리원칙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용기 있는 분이셨단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족에게 동료들은 살아생전 청렴한 남편의 모습을 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렴은 그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뿐이라고 허술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부패, 청렴은 바로 습관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시절 청탁으로 집에서 가깝고 편한 대기업의 일자리를 얻는 대신, 집에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 두 번 갈아타는 먼 거리에 힘들고 고단한 중소기업의 여공으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아 ‘잘못된 결정이었나?’ 돌이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새벽에 출근하여 늦은 밤 퇴근하며 성실히 일하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한 탓에 두 아이 모두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국립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졸업하여 청렴한 공무원과 모범 제빵사로 올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 장난감을 사러 물건을 사고 돌아왔는데 영수증을 보니 오만원 정도 계산이 덜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는 저로서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기도 했지만 다음 날 손주와 함께 가서 물건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멋있다! 정직한 우리 할머니 최고!”

할머니의 바른 행동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손주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청렴이야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삶의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육십 인생을 살아보니 청렴하게 살아온 지난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